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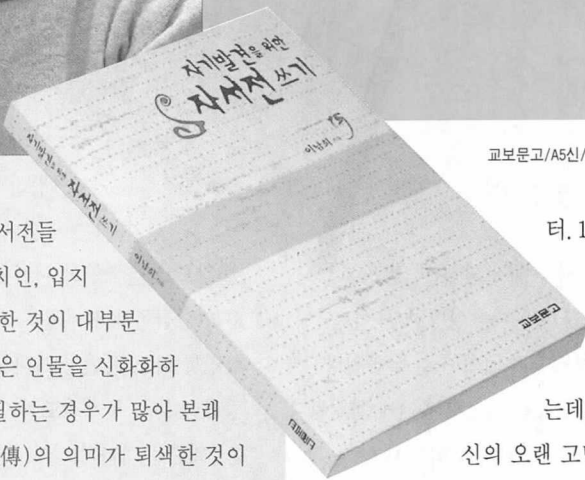
이남희씨

자기를 발견하는 행복한 세계로의 초대

《자기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 펴낸 이남희씨

“자서전은 자기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쓰는 방법을 터득하면 누구나 자서전을 쓸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A5신/304면/9500원

세인의 주목을 끈 자서전들은 유명 연예인, 정치인, 입지전적인 인물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자서전들은 인물을 신화화하는 경향이 짙고, 대필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적인 ‘자서전’ (自敘傳)의 의미가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이남희씨(42, 소설가)가 최근 펴낸 《자기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교보문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도전적인 시도다. 통념과 달리, ‘자서전은 평범한 개인 그 누구라도 자기발견을 위해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자신의 내면세계에 이르는 효율적 수단

“글쓰기는 자기반성을 통해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자서전은 자기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인 셈이지요. 자서전 쓰기는 중년의 고민을 넘어서는 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역시 중년에 들어서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몰두해왔다. 그가 펴냈던 소설 《사십세》(1996, 창작과비평사) 《플라스틱 섹스》(1998, 창작과비평사) 《황홀》(1999, 세계사) 등에서도 이런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자서전 쓰기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자기발견을 위한 자서전 쓰기’ 강좌를 맡으면서부

터. 1998년 초 한 시 단체의 부탁을 받고 커리큘럼을 짠데, 그 속에는 자신의 오랜 고민과 심리학 이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갔다. 이 책은 그의 강의록과 첫번째 수강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씌어졌다.

“자기를 소개하라는 과제를 내주면 처음에는 대부분 일방적인 자기고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쓰는 방법을 터득하면 자서전을 쓸 수 있습니다.”

강의와 마찬가지로 12주 동안 자서전을 쓰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은 글쓰기의 기초부터 시작해 자신의 마음과 욕망 정확히 알기, 유년기·청년기·중년기의 특성과 개인의 추억 쓰기, 주제 정하기와 집필 시작하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씨줄과 날줄로 삼은 것은 ‘자기를 아는 방법’과 ‘글 쓰는 방법’. 그는 ‘자기를 아는 방법’으로 융 심리학과 현실요법 등 자아이론을 원용한다.

“융은 자아실현을 페르소나, 즉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벗고 가뒤편된 무의식의 세계

를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험, 갈등을 빚어내는 욕망 등을 발견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원인을 발견하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훈련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는 글쓰기가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마치 물에 두어번 빠지고 나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글 또한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다만 훈련이 안돼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책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한 문장쓰기’ ‘앞절과 뒷절이 어울리는 문장쓰기’ ‘시제 맞추기’ ‘같은 말의 중복 피하기’ 같은 기본적인 글쓰기 규칙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해 수강생들이 자서전을 썼다. 처음에는 대부분 어려워하지만 강의가 진행되면서 자기를 알고 글쓰는 방법에 익숙해졌다.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니 가족관계도 좋아졌다는 수강생의 말을 듣기도 했다.

그는 당분간 자서전 쓰기의 전령사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두가지. 자기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 김정은 기자